전자발찌 안 채운 성폭행범

출소 후 재범방지 속수무책

복역중 '치유 프로그램' 강제성 없어
여학생 성폭행 잇따라 대책 마련 시급

전자발찌 부착과 치유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등 재범방지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8년 전자발찌 도입 등을 계기로 성범죄 재범 방지대책이 강화됐으나, 그 이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재범 방지 규제가 없다.

지난 5일 광주광산경찰은 출소 하루 만에 여중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고모(21)씨를 공갈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 A(13)양 등 2명을 폭행하면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교회 인근에서 여중생 B(13)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08년에도 초등생 3명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잇따른 성폭행 사건으로 3년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3일 출소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고씨의 경우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행위를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부착 대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복역한 교도소에서도 '형식적인' 교화 프로그램만을 받아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치유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성폭행 혐의로 13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귀가 중인 여고생 2명을 성폭행한 강모(3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에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이나 실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최대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성범죄자 치유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줄인다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과 맞물려 관련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도소 등에서는 치유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40시간 또는 100시간 과정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성폭력 상담소나 여성센터 등 여성관련 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씨의 경우와 같이 관련법이 강화되기 이전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문에 치유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이 명시되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있다.

목포 교도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치유 프로그램이 재범률을 크게 줄이고 있지만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동시간 제한 등의 불이익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군수에게는 뇌물 전달 안돼"

광주고법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기동(63) 구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승진인사,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임모(5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 사이에 인사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갔지만 서 군수에게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수사기관 등에서 김씨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았지만, 공사 과정의 편의제공과 승진 대가로 서 군수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례군민들이 군수의 장기간 구속에 따른 행정 공백의 책임을 물어 추진중인 주민소환 투표의 추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서 군수는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임씨로부터 5000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48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우찬 〈8481〉 김종두

초등학교 골목길서 음란행위 3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김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들과 함께 있던 유치원 교사(여·22)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날 하루에만 총 7명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족과 작별하는 신병

육군 31사단이 12일 올해 첫 신병훈련 수료식을 갖고 영외 면회를 실시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귀대하는 한 신병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들에 짐 되기 싫다"
70대 노인 아파트 투신

12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화단에 김모(79)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62)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은 경찰에서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노인 1명이 피를 흘린 채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아들(50) 부부와 함께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평소 자식에게 얹혀 사는 것을 미안해했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소 굶겨죽인 사육농 동물학대 조사 논란

농식품부 실태조사 공문에 농민들 반발

최근 20마리에 가까운 육우가 굶어 죽은 순창의 축산농가(광주일보 1월 4·11일 6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순창군 문동연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들은 소를 아사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인데 이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산농가 실태 파악에 나서기 보다 미봉책에 불과한 한우(육우) 수급 조절을 위한 저능력 암소 자율도태 장려금(정부지원 30만~50만원)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더해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축산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순창한우협회 이성연(61) 회장은 "만일 동물 학대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전국 한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26일 3마리의 소가 처음으로 굶어 죽은 뒤 사료를 제공하겠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한 채 방치하다 이달 3일에는 9마리, 10일에는 4마리가 추가로 아사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게 먹이고 있으나 나머지 40여마리의 소도 영양이 부실한 상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의장선거 돈받은 전·현 도의원 9명 무죄

목포지원"입증 어렵다"

전남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 현직 도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12일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모 전 의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강모씨에게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 현직 도의원 9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의원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수수 사실을 기록한 수첩 등이 몇 년이 지나 신빙성이 낮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줬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에게는 김 전 의장의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선거에서 도와 달라고 요구하며 의원들에게 500만~2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CCTV 얼굴 안 찍히려 뒷걸음질 쳐 악기 슬쩍

대학 동아리방서 훔친 2인조 처남·매부 검거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뒷걸음질로 대학 동아리방에 들어가 악기를 훔친 처남·매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2일 대학 동아리방에서 악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42)씨와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35분께 광주 모 대학 학생회관 동아리방에 들어가 통기타와 전자키보드 등 160만원 상당의 악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회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로 침입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이 동아리 회원으로 졸업생인 윤씨의 뒷모습을 알아봐 계획한 완전범죄는 물거품이 됐다.

윤씨는 재학 당시 이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졸업 후에도 모임에 간간이 참석해 왔다.

경찰은 학교 구조나 동아리 사정을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뒷모습 화면 등에 대한 탐문수사로 윤씨의 행방을 뒤쫓았다.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연주하면 손님을 더 많이 끌 것 같아 처남과 함께 악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은방 강도 1명 나흘만에 붙잡아

광주 금은방 강도사건의 용의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로 용의자 김모(3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 7일 오전 11시5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여주인(52)을 흉기로 위협해 4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 1월 9일 6면〉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서자마자 불과 수초만에 CCTV 3대를 바로 껐으며 금품을 강탈한 후 시외까지 도주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 버릇 못고친 차량 절도범

쌍나팔

○…차량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했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두 달 만에 광주·전남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경찰과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혀 경찰서행.

○…12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힌 고모(20)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김모(56)씨의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훔쳤다는 것.

○…경찰은 잠복근무를 벌이다 화순군 동면에서 주차된 유모(31)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고씨를 추격, 격투를 벌여 검거.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2월1일